



다산의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美的) 이상향(理想鄉)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를 중심으로-

서 성 열
영남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국문요약

본고는 다산의 미원은사를 통해 그의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이상향을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이상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의 전통 유토피아 모델인데,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이상향은 그 서술 양상이 보다 동태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미적 이상향, 미적 유토피아라는 말은 서구에서 온 것인데 예술과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토피아를 향해 예술이 나아가고 예술은 유토피아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미학은 한국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이 중요한 것이다. 다산의 미적 유토피아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술적으로 표현된 미원은사가에 어떤 유토피아적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다산이 살았던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이상향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온다. 청학동, 이화동, 회룡동, 태평동은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미적 유토피아의 풍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 우리 선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에서 그리는 아름다운 풍경은 농적 토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산의 미원은사를 살펴보면 다산은 미원이라는 곳에 사는 심씨 일족에 관한 노래를 부른다. 미원은 소규모 자급자족의 소농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미원의 아름다움은 소농을 토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다산의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의 현대적 의미는 모두 4가지를 들 수 있다. 1. 남반구 굶주리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산의 미원은사가에서 소농의 자립과 자급자족을 보여주었다. 2. 오늘날 지구 생태환경 파괴에 있어 소농은 지구를 살리는 일인 것이다. 다산의 미원은사가에 나오는 미원촌은 오늘날의 생태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3. 미원에 나타는 미적 생태교육과 미적 생태경관은 소농을 토대 한 미적 삶(내용)에 대해 잘 말해준다.

다산의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농적 토대 위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머리말

본 연구는 다산의 시(미원은사가)를 통해 한국의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美的) 이상향(理想鄉),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를 고찰해보자 한다. 왜냐하면 다산의 시에는 당시 그가 그렸던 미적 이상향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산이 꿈꾸었던 미적 유토피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것이 다산의 말한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백범 김구는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다.¹⁾ 요즘 국가의 품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정립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상을 모색할 때이다. 특히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1) 김구, 배경식 풀고보렘, 2008, 『올바르게 풀이 쓴 백범일지』, 너머북스, 647쪽.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I. 유토피아(Utopia)

한국문학에서 유토피아를 다룬 글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라는 논문이다. 이것은 6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다.²⁾ 정민의 『초월의 상상』과 서신혜의 『조선인의 유토피아』³⁾라는 책은 위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이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전통 중국의 유토피아 모델이다. 『산해경(山海經)』 속에 그려진 이상국가(理想國家), 『도덕경(道德經)』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장자(莊子)』의 서왕모(西王母), 『예기(禮記)』의 대동사회(大同社會), 그리고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들 수 있다. 그 흔적들은 주로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 속에서 잘 들어난다. 가령 청학동(靑鶴洞) 설화를 위시한 십승지(十勝地)를 찾는 소재는 잘 알려진 것이다.⁴⁾

정민은 ‘한시 속의 유토피아’에서 “우리 옛 선인들이 일상에서 꿈꾸었던 낙원은 황금 궁궐과 보석으로 치장된 천상 낙원이 아니었다. 신선들이 봉황과 황룡을 타고 날아다니는 천상 선계를 상상하기는 했으며, 그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낙원은 먹고 입는 것이 충분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움트며,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소박하고 조그만 공동체였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없이 분배의 정의가 지켜지고 착취도 억압도 없는, 그리하여 마침내 임금의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나눔의 공동체였다.”⁵⁾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이상향은 그 서술 양상이 보다 동태적이고 현실적이다. 조선후기의 현실 지향적 이상향의 모델을 연암 박지원(1737-1805), 초정 박제가(1750-1805), 다산 정약용(1762-1835)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학자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들의 이상향은 현실적이고 동태적이며, 정치적 양상을 보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⁶⁾

종래의 연구에서 다산의 유토피아는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외에 심경호의 「다산의 薇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 의식에 대하여」와 김상홍의 「茶山詩의 유토피아 世界」를 들 수 있겠다. 김상홍에 따르면 다산의 유토피아는 염세주의나 은둔사상에서 나온 피세 공간에서 건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산은 어디까지나 전

2) 이종은 외, 1996,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논집』 28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참조.

3)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참조.

4) 배병삼, 2003, 「박지원의 유토피아」, 『정치사상연구』 9집, 174쪽.

5) 정민, 2002,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78쪽.

6) 위의 책, 174쪽, 참조.

원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⁷⁾ 심경호는 다산은 당시 조선의 피폐한 현실을 인식하며 소농(小農) 중심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⁸⁾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II.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

여기서 다산의 유토피아가 어떻게 미적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미적(美的) 이상향(理想鄉),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라는 용어는 익숙한 말이 아니다. 그래도 유토피아라는 말은 간간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16세기 초에 토머스 모어가 처음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낸 이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말은 그 어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때문인지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정적이라고 할 때 이는 곧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을 가리키며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때 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꿈이 실현되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 욕망과 그 성취 사이에 어떤 긴장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인 곳’을 가리킨다.⁹⁾ 본고에서 다산의 유토피아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인 ‘이상적인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학사전』에 보면 ‘유토피아(Utopie)’라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술작품에서 훌륭한 삶의 가능성이 모든 인간을 위한 모범이 되는 지점에서 유토피아는 미학과 절충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쉴러와 블로흐를 제시한다.¹⁰⁾

쉴러는 『인간의 미적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미적 국가(aesthetic state)로서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다.

“그곳(미적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습이나 본성을 무조건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은 대담한 단순성과 고요한 무구함으로 가장 복잡한 상황도 통과해 가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모욕할 필요도 없고,

7) 김상홍, 2002, 「다산 시의 유토피아 세계」, 『한문학논집』 20집, 117쪽.

8) 심경호, 1992, 「다산의 薇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 의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참조.

9) 임철규, 2009,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9쪽.

10) 헵크만·로터 엮음, 김진수 옮김, 1998, 『미학사전』, 예경, 264-265쪽.

우아함을 보이기 위하여 품위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¹¹⁾

쉴러에게 있어 유토피아는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이 구현되는 곳을 말한다.

블로흐는 예술은 “보이는 예측된 상으로서의 예술적 상”이라고 했다.¹²⁾ 이것은 예술작품에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모습, 바로 유토피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겉으로 드러난 특징을 제외하면, 어떤 다른 측면의 잠재성을 전하고 있다. 즉 아직 한 번도 당대에 출현하지 않은 미래의 내용,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상태의 내용이 위대한 예술 속에 함축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은 지난 시대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보다 멀리 위치한 새로운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한다.¹³⁾ 예술이야말로 구체적 유토피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¹⁴⁾

블로흐는 예술을 통해 다가올 세계의 모습인 유토피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미학에서 유토피아를 다루는 논의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김문환의 논의이다. 그는 예술과 유토피아를 묶어서 유토피아 예술이론을 말하고 있다. 유토피아 예술이론은 집단적 이기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윤리를 공통된 윤리적 기반으로 삼는바, 내용상 긍정적 유토피아 예술이론(루카치와 블로흐)과 부정적 유토피아 예술이론(하이데거와 아도르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예술을 일종의 실현가능한 모델로서 파악하면서 이들 통한 현실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후자는 해방적 관심 내지 반성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본래적인 예술을 통해 세계 내 모든 개체들이 도덕적 정치적 자유를 위한 역사의 새 출발을 촉구하고자 한다.¹⁵⁾ 전자나 후자나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사회윤리를 공통적 기반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듯 미학과 유토피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에 관해 국내 미학자 가운데 민주식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서양에서 나온 미학(aesthetics)이라는 말을 동양의 풍류(風流)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풍류를 미적 생활방식(aesthetics way of life)이라고 보았다.¹⁶⁾ 민주식은 빌리언트(Arnold Berleant)의 말을 빌려 미학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¹⁷⁾ 그렇다면 한국 미학은 한국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프리드리히 쉴러, 안인희 옮김, 1995, 『인간의 미적교육에 관한 편지』, 청하, 167쪽.

12) 에른스트 블로흐, 박철호 옮김, 2005, 『희망의 원리1』, 열린책들, 430쪽.

13) 위의 책, 256쪽.

14) 위의 책, 444쪽.

15) 김문환, 2004(3쇄), 『예술과 윤리의식』, 소학사, 395쪽.

16) 민주식, 2000, 「풍류(風流) 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11집, 한국미학예술학회, 참조.

17) 민주식, 2005, 「전통 예술연구와 한국미학」, 『미학예술학연구』 21집, 한국미학예술학회, 참조.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바라보는 이상향(理想鄉), 유토피아(Utopia)가 중요하고, 이것은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에서 나타난 유토피아 예술이론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듯 미학과 유토피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미적 유토피아’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미학사전』에는 ‘미적’ 유토피아와 ‘미적인 것’의 유토피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유토피아에 관한 예술적 묘사”라고 했고, 후자는 “예술이 형식에 의하여 소유하는 유토피아적 내용”이라고 했다.¹⁸⁾

여기서 다산의 미적 유토피아를 다룰 때에는 후자 즉, 미원은사가로 표현된 유토피아적 내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다산이 꿈꾸었던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III.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

여기서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가 어떻게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특히 다산이 살았던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이상향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온다. 그 이름들을 통해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옛 선조들의 문집이나 각종 설화에 이상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옥야(沃野), 낙토(樂土), 동천(洞天), 복지(福地), 선경(仙境), 승지(勝地) 등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옥야는 물질적 풍요가 보장된 천혜의 공간이고, 낙토(樂土, 樂國, 樂鄉)는 착취가 없고 살기 좋으며 영원히 울부짖을 일이 없는 유토피아다. 동천은 계곡이나 동굴 내의 별천지를, 복지는 재해가 미치지 않는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데 개념적으로 복지 속에 동천이 포괄될 수도 있다. 선경(仙境, 仙界, 仙鄉)은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지만 신선이 살만한 좋은 곳의 의미로부터 속세를 떠난 좋은 곳,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게 된다. 승지는 ‘십승지지(十勝之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많이 쓰여 온 유토피아와 상관된 어휘이다. 이는 굽주림이 없고 병화(兵禍)를 피할 수 있는 선택된 땅이라는 의미이다.¹⁹⁾ 이렇듯 한국의 이상향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하나같이 좋고 아름다운 곳을 말하고 있다.

18) 행크만 · 로터 엮음, 앞의 책, 264-265쪽.

19) 이종은 외, 앞의 책, 13-17쪽.

서신혜는 ‘동천’을 좀 더 주목하는데 그 까닭은 전국적으로 ‘동천’이라고 이름 붙인 마을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암 송시열이 살았던 화양동도 본래 ‘화양동천’이라 불렀고, 우리가 잘 아는 ‘청학동’도 역시 본래 이름은 ‘청학동천’이다. 인왕산에서 부암동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옆 큰 바위에는 ‘청계동천(淸溪洞天)’이라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산천이 수려하다고 알려진 동네 입구나 그 근처 바위에는 ‘무슨무슨 동천(洞天)’이라고 새겨져 있다.²⁰⁾

그래서 이상향의 이름 가운데는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것도 여럿 있다. 지리산 청학동(靑鶴洞)은 이인로가 찾다가 실패한 곳이다. 이인로는 옛 노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지리산) 속에 청학동이 있는데 길이 아주 좁아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하다. 기어서 수십 리쯤 가야 비로소 아주 넓은 곳에 다다른다. 주위가 다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서 씨 뿌리고 나무 심기에 알맞으며 그 안에 오직 푸른 학이 깃들이고 있어 청학동이라 부른다.”

이인로는 끝내 청학동을 찾지는 못했으나 청학동을 향해 지나는 곳마다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다고 하면서 바윗돌에 시를 남겼다.²¹⁾

금강산 이화동(梨花洞)은 홍생이 어느 승려의 도움으로 가보았다는 배나무가 많은 곳이다. 홍생은 금강산에 놀러갔다가 한 스님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 깎아지른 듯한 산허리를 몇 번이나 들고 끊어진 길을 건너기를 한참 동안 하여 한 별세계에 이르렀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땅도 기름진 곳에 수십 채 집들이 나무 사이에 이어져 있는 평안한 곳이었다. 특히 골짜기 안에 배나무가 가득했고 집마다 배를 쌓아놓고 살고 있었다. 한창 배꽃이 필 때면 온 마을이 눈 온 날 아침처럼 환하다고 해서 이화동이라 부른다.²²⁾

회룡동(回龍洞)은 관동 지방의 설생이 사는 곳이다. 설생은 광해군 계축년(1613) 인목대비 폐비 사건을 보고 세상을 등지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의 벗인 오윤겸은 몇 년 후에 안찰사가 되어 관동 지방 영랑호에 배를 띄어 놀다가 설생을 만나 그의 거처인 회룡골을 가게 된다. 험악한 산길과 절벽 사이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기름진 땅에 온갖 과실이 가득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봉우리의 아름다움과 각종 돌들의 기괴한 모양을 이루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중에 오윤겸이 다시 설생을 찾았으나 회룡골은 텅 비어 있었고 설생의 종적은 알 수 없었다.²³⁾

태평동(太平洞)은 충청도 갑산에 임정수가 구축한 마을이다. 그곳은 국세(國稅)도 없고 병화(兵禍)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태평동이라 한다. 그곳에는 맑은 샘, 흰돌, 약초와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땅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더라.²⁴⁾

20) 서신혜, 앞의 책, 53-54쪽.

21) 이인로, 유재역 역주, 1978, 『파한집』, 일지사, 39-42쪽.

22) 김세민 편찬, 2000, 『파수편』, 연문사, 110-111쪽.

23) 최웅, 1996, 『주해 청구야담Ⅱ』, 국학자료원, 127-130쪽.

고전 문헌에서 나타난 이상향인 청학동, 이화동, 회룡동, 태평동은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선인들이 묘사한 유토피아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미적 이상향, 미적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미적 유토피아는 마냥 놀고먹는 곳이 아니다. 미적 유토피아의 풍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 그곳은 땀 흘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여기서 한국적 미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향의 아름다움은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삶이다. 우리 선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에서 그리는 아름다운 풍경은 농적 토대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회룡동에 간 오윤점은 설생의 종복(從僕)들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가 준미(俊美)하고 풍류(風流)에 능(能)함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미적 유토피아에 사는 그들은 미적 인간이고 그들은 미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은 바로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에서 미적 생활을 하는 심씨에 대한 이야기를 미원은사가에서 노래하고 있다.

IV. 다산의 농적(農的) 토대를 둔 미적(Aesthetic) 유토피아(Utopia)

이제 다산의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를 살펴보자.

槩溪之北小薇源 벽계 북쪽의 자그마한 미원은
仇池武陵可弟昆 구지산 무릉원과 형 동생 할 만하다
七十五家皆種樹 일흔다섯 집 모두 나무를 심었는데
就中多花稱沈園 그 속에 꽃 많은 집 심씨의 정원이라네
沈本京城宦家子 심은 원래 한양의 벼슬아치의 자제로
蚤年遊學求乘軒 젊은 시절 유학하여 벼슬길을 찾다가
一朝賣家歌鞞佩 하루아침에 집을 팔고 불패를 노래하며
扁舟渺然思林樊 조각배에 몸을 신고 산에서 살려고

24) 조여적, 이종은 옮김, 1986, 『청학집』, 보성문화사, 157쪽.

徑投此地結衡宇 이곳에 정착하여 오막살이집을 짓고
 連筒引水開荒原 대통으로 물을 끌어 황무지를 개간했네
 稻梁會計饒積著 벼도 심고 조도 심어 넉넉히 쌓아두자
 僮指分耕列成村 아이들과 나눠 갈아 한 마을을 이뤘다네
 石墻瓦屋整位置 돌담에 기와집에 자리를 잡고서는
 甯經駝書學滋蕃 곡식 가꾸고 짐승 치는 방법을 더 배워서
 桑麻楮漆棗栗柿 뽕과 삼 닥과 옷 대추 밤에 감나무며
 駒犢鵝鴨鷄犬豚 망아지 송아지 오리 닭 개 돼지 다 기르네
 家無鹽井百物具 소금 우물 빼고는 온갖 물건 다 있어서
 祭祀燕飲不出門 문을 나지 않고서도 제사 잔치 다 치르네
 生男學圃女學織 아들 낳으면 농사일 딸은 길쌈 가르치고
 羽畎山裏朱陳婚 우견산에서 주진촌처럼 혼인하며 살았다네
 子壯克家翁乃老 자식 커서 집안 맡자 영감은 늙었기에
 栽花接果度朝昏 꽃 심고 나무 가꾸며 날마다를 보낸다네
 菊花之業尤絕世 국화 가꾸는 솜씨는 더욱 절묘하여
 四十八種標格尊 품격이 좋은 것만 사십팔 종이 피는데
 每到花開醉不醒 언제나 그 꽃 필 때면 술이 깰 사이 없이
 陶然白髮臨淸樽 성성백발 흥에 겨워 술독 놓고 앉았다네
 著書頗學眉公體 글을 쓰면 그래도 소동파체를 쓰고
 西陽諾臯多奇言 유양 낙고처럼 기이한 말도 잘한다네
 吁嗟此老利肥遯 아아! 참 그 늙은이 세상에 숨어 잘도나 살지
 天公餉福眞殊恩 남다른 사랑으로 하늘이 복을 내렸나봐
 我生已誤無可及 이미 그르친 내 인생은 그를 따를 수 없어
 聊述狂歌示子孫 자손에게나 보이려고 미친 노래를 적어보네²⁵⁾

미원은사가는 자신이 장기로 유배를 가서 지은 시이다. 이 시는 7언 32구 224자의 긴 노래로 다산시문집 4권에 실려 있다. 시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25) 정약용, 1936, 『다산시문집』, 신조선사본,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중판2쇄), 『국역다산시문집2』, 서울, 239-240쪽.

교리(校理) 윤영희(尹永僖)가 언젠가 날 위해 그에 관한 얘기를 해주었는데, 심(沈)은 그와 인척(姻戚)이었음²⁶⁾

다산은 윤영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시를 지었다. 첫머리의 “벽계 북쪽의 자그마한 미원은 구지산 무릉원과 형 동생 할 만하다”에서 심씨 일족이 사는 곳은 미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원은 벽계의 북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벽계는 어디인가? 심경호는 벽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미원은 현재 가평군(加平郡) 선촌리(仙村里)에 ‘미원(美原)’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²⁷⁾ 중요한 것은 다산이 노래한 미원은 구지산 무릉원과 형 동생 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상홍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병서(桃花原記并序)를 언급하며 다산의 미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이 노래한 미원은 우리 선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 무릉도원이다.²⁸⁾

다산이 꿈꾸었던 이상향은 미적 유토피아이다. 동양의 무릉도원은 흔히 경치가 좋은 곳을 말한다. 다산의 시에서도 그러한 풍경을 엿볼 수 있다. 미원에 사는 심씨의 정원에 가장 꽃이 많다. 날마다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살고 더욱이 국화 가꾸는 솜씨는 더욱 절묘하여 품격이 좋은 격만 사십팔 종이 된다고 한다. 다산은 심씨네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고 말(기이한 말)과 글(소동파체)도 예술적 품격이 높다고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미학이라고 했을 때 삶의 방식으로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물론, 다산이 말한 심씨의 정원은 아주 아름답다. 그리고 심씨뿐만 아니라 미원에 사는 75가구의 정원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원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곳, 미적 공간이지만 다산은 그 곳을 그저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적 공간에 사는 미적 삶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다. 다산은 심씨를 보면서 미적 삶과 미적 유토피아를 보았던 것이다.

“자그마한 미원”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소규모 자급자족의 공동체이다. 자그마한 미원은 “문을 나지 않고서도 제사 잔치 다 치를 수 있는” 곳이다. 미원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자급자족의 농적 토대 위에서 나타난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급적, 자립적 관점이 드러난다.

향리에 살면서 과원(果園)이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26) 위의 책, 239쪽.

27) 심경호, 앞의 논문, 102쪽. 심경호는 미원에 대해 지리적인 측면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28) 김상홍, 앞의 논문, 75쪽. 김상홍은 다산이 어떻게 무릉도원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데, 다산이 “꿈꾸는 세계는 선계가 아니라 전원에서 처자들과 노동하며 소박하게 살고자(100쪽)”한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무릉도원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김상홍의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는 지난번 국상(國喪)이 나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만송(蔓松) 열 그루와 향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가 수백 그루, 접목(接木)한 배나무가 몇 그루, 옮겨 심은 능금나무 몇 그루가 있었을 것이며, 닥나무가 밭을 이루고 옷나무가 다른 언덕에까지 뻗어 있을 것이며, 석류 몇 그루와 포도 몇 덩굴과 파초도 네댓 뿌리는 되었을 것이다. 불모지(不毛地)에 버드나무 대여섯 그루가 있을 것이요, 유산(酉山 마을 뒷산)의 소나무가 이미 여러 자쯤 자랐을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하나라도 하였느냐? 네가 국화를 심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양식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니, 한갓 꽃 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지황(生地黃)·반하(半夏)·길경(桔梗)·천궁(川芎) 따위와 쪽나무와 꼭두서니 등에도 모두 유의하도록 하여라.²⁹⁾

다산은 두 아들에게 시골에 살면서 과수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분명한 중에도 나무를 가꾼다고 이야기한다. 다산이 지향한 유토피아의 바탕은 자작농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입을 글도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도 자작농의 자립을 보여준다.

채소밭을 가꾸는 요령은 모름지기 지극히 평평하고 반듯하게 해야 하며 흙을 다룰 때에는 잘게 부수고 깊게 파서 분가루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다. 씨를 뿌림에는 지극히 고르게 하여야 하며, 모는 아주 드물게 세워야 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하면 된다. 아욱 한 이랑, 배추 한 이랑, 무우 한 이랑씩을 심고, 가지나 고추 따위도 각각 구별해서 심어야 한다. 그러나 마늘이나 파를 심는 데에 가장 주력하여야 하며, 미나리도 심을 만하다. 한여름 농사로는 오이만한 것이 없다. 비용을 절약하고 농사에 힘쓰면서 겸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³⁰⁾

살림살이를 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뽕나무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제야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지혜보다 더 위에 갈 것이 없음을 알았다. 과일을 파는 일은 본래 깨끗한 명성을 잃지 않지만 장사하는 일에 가까우나, 뽕나무 심는 거야 선비의 명성을 잃지도 않고 큰 장사꾼의 이익에 해당되니 천하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남쪽 지방에 뽕나무 3백 65주를 심은 사람이 있는데 해마다 3백 65궤미의 동전을 얻는다. 1년을 3백 65일로 보면 하루에 한 궤미로 식량을 마련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궁색하지 않을 것이요 아름다운 명성으로 세상을 마칠 수 있으니 이 일은 가장 힘써 배워야 할 일이다.³¹⁾

29) 정약용, 1936, 『다산시문집』, 신조선사본,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중판2쇄), 『국역다산시문집9』, 술, 23쪽.

30) 앞의 책, 23쪽.

위 두 글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美名-아름다운 이름(명성)’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오이를 농사로 비용을 절약하고 농사에 힘쓰면서 곱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게 된다고 했다. 두 번째는 뽕나무를 심어 죽을 때까지 궁색하지 않을 수 있고 아름다운 명성으로 세상을 마칠 수 있으니 이 일에 가장 힘쓰고 배우라고 한다.

여기서 농(農)의 자립(自立)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명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명성이나 명예라고 할 수 있고, 美는 ‘훌륭한’, ‘뛰어난’, ‘칭찬할만한’ 뜻으로 농의 자립은 관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훌륭한 삶, 탁월한, 칭찬할만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농을 통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농을 통해 아름다운 삶, 훌륭한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얻은 사람이 다산이 노래하는 미원의 심씨인 것이다. 다산이 그리고 있는 미원은 농사를 짓는 미적 인간들이 사는 미적 공간이고, 그곳은 바로 농적 토대 둔 미적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V. 현대적 의의

1. 미원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사는 소농

오늘날 지구상에는 여전히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농적 토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세계식량경제 속에서 농업이라는 것은 기업농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기업농은 석유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서 소농(小農)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³²⁾. 프리츨프 카프라는 자본 기업농의 확장으로 인한 제3세계의 환경파괴는 소농의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생활방식의 와해와 맞물려 있다고 했다.³³⁾ 세키 히로노는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식량위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 체제의 궁극적 귀결리라고 말하면서 세계무역의 최대 희생자는 자작농과 선주민(先住民)이라고 한다.³⁴⁾ 전 세계에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8억 5000만명 정도 되는데

31) 정약용, 1936, 『다산시문집』, 신조신사본,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중판2쇄), 『국역다산시문집8』, 술, 33쪽.

32) Jeremy Rifkin, 2002, *The hydrogen economy : the creation of the worldwide energy web and the redistribution of power on earth*, New York : Jeremy P. Tarcher/Putnam; 이진수 옮김, 2003, 『수소혁명』, 민음사, 210쪽.

33) Fritjof Capra, 2002, *hidden connections : integrating the biological, cognitive, and social dimensions of life into a science of sustainability*, Doubleday; 강주현 옮김, 2003, 『히든커넥션』, 휘슬러, 203쪽.

그들 중 4분의 3은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이다.³⁵⁾ 그렇다!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소농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소수의 부유층들이 토지 축적이 심했고 대부분의 소농들은 영세한 토지 소유자나 무전농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지주들의 소작농이 되거나 그것도 여의치 못한 농민은 임노동자가 되었다. 다산의 시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참상을 낱낱이 그리고 있다. 다산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농민들의 굶주림이었다.³⁶⁾ 오늘날에도 앞서 보았듯이 남반구에 굶주리는 농민들이 있다. 아마 다산이 오늘 여기서 산다면 바로 그들에게 눈을 돌렸을 것이다. 지구 마을에서 가장 고통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소농들에게 말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자. 월든 벨로는 세계 식량위기가 자본 기업농의 확산에 있고, 그에 따라 소농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³⁷⁾ 그리고 농생태학자 미구엘 알티에리는 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주요 곡물의 다수는 여전히 남반구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³⁸⁾ 그렇다면 남반구에 굶주리는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월든 벨로는 최초로 옥수수를 재배했던 멕시코와 모범적인 쌀 자급국가였던 필리핀이 수입쌀과 수입옥수수에 의존하게 된 까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남반구 농민들은 저항을 하고 있고 다시 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으로 돌아가고 있다.³⁹⁾ 장 지글러도 식량위기의 대안을 남반구 소농들이 기업에 이윤을 창출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해야한다는 것이다.⁴⁰⁾ 루돌프 바로도 유토피아적 대안을 원칙적으로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이 필요하다고 했다.⁴¹⁾ 다산의 미원은사가에 나오는 미원은 바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이다. 다산은 미원은사에서 소농의 자립과 자급자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그가 꿈꾼 유토피아인 것이다.

34) 關曠野, 2009, 「貿易の論理 自給の論理」, 『自給再考』, 山崎農業研究所, 36쪽.

35) Jean Ziegler, 1999, *Faim dans le monde expliquée a mon fils*, Editions du Seuil; 유영미 옮김,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32쪽.

36) 송재소, 1986, 『다산시 연구』, 창작사, 참조.

37) Welden Bello, 2009, *The Food Wars*, Verso, p16.

38) Miguel Altigri, 2008, "Small farms as a planetary ecological asset: Five Key Reasons Why We should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Small farms in the Global South", *Food First*, <http://www.foodfirst.org/en/node/2115>, 참조.

39) Welden Bello, *Ibid.*, cf.

40) Jean Ziegler, 유영미 옮김,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참조.

41) Rudolf Bahro, 1986, *Building the Green movement*, GMP, p28.

2. 미원에서 지구를 살리는 삶을 사는 소농

52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농업을 완전히 예측시킬 것 같은 기세였다. 하지만 서서히 그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자본 기업농은 많은 농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파괴와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⁴²⁾ 이에 반해 소농이 중요한 것은 생태적 안정을 해치지 않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바로 지구 생태환경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투 웨이밍(Tu Wei-ming)은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fe)을 살아야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⁴⁴⁾

웬델 베리는 오늘날 환경의 위기는 소농의 위기에서 왔다고 했고, 바로 지속가능한 소농이 대안이라고 했다.⁴⁵⁾ 그리고 미구엘 알티에리는 생태학적 위기의 현실에서 소농을 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까닭을 말하고 있다. ①세계 식량안보의 열쇠는 소농이 쥐고 있다. ②대규모 단작보다 소농의 생산력이 뛰어나고 자원을 더 잘 보존한다. ③전통적이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소농이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④소농은 유전자조작 작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구역이다. ⑤소농이 지구의 온도를 내린다.⁴⁶⁾ 다산의 미원은사가에 나오는 미원촌은 소농을 토대를 둔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미원은 오늘날 지구마을 곳곳에 있는 생태공동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미원에서 미적 생태교육을 실시하는 소농

미원에서 아들을 낳으면 농사일을 배우고 딸은 길쌈을 가르친다. 앞서 보았듯이 다산은 두 아들에게도 농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길쌈을 하는 미원의 여인들에 모습에서 간디의 물레를 떠올린다. 간디의 물레는 영국식민통치 아래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 일치단결된 계급 없는 공동체의 상징이었다. 스스로 실을 짓고 베를 짜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인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영예로운 상징이 되었다.⁴⁷⁾ 미원에서 길쌈을 하는 이

42) Welden Bello, Ibid., p36.

43) Ibid., p140.

44) Tu Wei-ming, 1994, "Beyond the Enlightenment Mentality", *Worldviews and ecology : religion, philosophy, and the environment*, Orbis Books, p19.

45) Wendell Berry, 1996(Third Edition), *The Unsettling of America : culture & agriculture*, Sierra Club Books, pp39-48.

46) Miguel Altigri, Ibid., cf.

47) Satish Kumar, 1996, "Gandhi's Sweadshi: The Economics of Permanence", *The case against the global*

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데이비드 W. 오어는 농업은 교양과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 지역의 많은 젊은이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농업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농장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면 그 학생은 체력, 절약, 자립, 실용 능력, 근면, 협동, 생태적 능력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농장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학,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조류학, 경관 설계, 토양 복원, 역학, 태양력 기술, 사업 운영, 철학, 농촌사회학을 배우는 학제적 연구실이 될 것이다.⁴⁸⁾ 농사일이라는 것은 교양이며 미적 인간이 되는 미적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농사일을 권하면서 생각했던 기대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미원에 이루어지는 교육도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날 생태교육을 연상할 수 있고 이것은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생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원에서 미적 생태경관을 창출하는 소농

다산이 그리고 있는 미원은 농적 토대를 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 곳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러한 풍경은 농업을 통한 생명질서의 인식으로 성립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다산은 심씨의 국화 가꾸기 솜씨는 더욱 절묘하다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원에 사는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화를 아름답게 재배한다는 말은 땅을 잘 안다는 말이고 정성스럽게 보살핀다는 뜻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미원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미적 생태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economy : and for a turn toward the local, Sierra Club Books, p422.

48) David W. Orr, 1994, *Earth in mind :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Island Press, p.120.

49) 津野幸人, 1991, 『小農本論—だれが地球を守ったか』, 農山漁村文化協會, 151쪽.

50) Robert L. Thayer, 1994, *Gray world, green heart : technology, nature, and sustainable landscape*, John Wiley and Sons, cf. 저자는 우리 시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가능한 조경을 제시하고 있다.

맺음말

다산의 미원은사가를 통해 살펴본 이상향은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공동체는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면 살아가는 자그마한 미원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심씨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며 미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바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곳이 미원이며 미적 유토피아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산이 꿈꾸었던 이상향이 농적 토대를 둔 미적 유토피아라고 말했고 그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세계식량체계 속에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남반구의 많은 소농들이 미원에서 사는 심씨 일족처럼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의 시대에 소농이 지구를 살릴 수 있기에 미원의 소농은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미원에서는 미적 생태교육이 이루어지고, 미원의 풍경은 농적 토대 위에 미적 생태경관이 펼쳐진다.

흔히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그것도 순위를 뺏기는 곳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농사짓기 좋은 나라’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산을 통해 살펴 본 미적 유토피아이다. 그래야 남반구의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병든 지구를 치유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산은 미원은사가에서 자손에게나 보이려고 미친 노래를 적어본다고 했는데, 그 노래가 지금 나에게도 들리고, 나는 다시 다산을 통해 미친 노래를 적어본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정약용, 1936, 『다산시문집』, 신조선사본, 민족문화추진회 역, 1994(중판2쇄), 『국역다산시문집1-9』, 솔

단행본

- 김구, 배경식 풀고보탬, 2008,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 너머북스
김문환, 2004(3쇄), 『예술과 윤리의식』, 소학사
김세민 편찬, 2000, 『파수편』, 연문사
송재소, 1986, 『다산시 연구』, 창작사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심경호, 1992, 「다산의 薇源隱士歌에 담긴 歸田園 의식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5권 3호
이인로, 유재역 역주, 1978, 『파한집』, 일지사
임철규, 2009,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정민, 2002,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조여적, 이종은 옮김, 1986, 『청학집』, 보성문화사
최웅, 1996, 『주해 청구야담Ⅱ』, 국학자료원

논문

- 김상홍, 2002, 「다산 시의 유토피아 세계」, 『한문학논집』 20집
민주식, 2005, 「전통 예술연구과 한국미학」, 『미학예술학연구』 21집
민주식, 2000, 「풍류(風流) 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예술학연구』 11집
배병삼, 2003, 「박지원의 유토피아」, 『정치사상연구』 9집
이종은 외, 1996,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논집』 28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일어

- 關曠野, 2009, 「貿易の論理 自給の論理」, 『自給再考』, 山崎農業研究所
津野幸人, 1991, 『小農本論—だれが地球を守ったか』, 農山漁村文化協會

영어

- David W. Orr, 1994, *Earth in mind :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Island Press,
Fritjof Capra, 2002, *hidden connections : integrating the biological, cognitive, and social dimensions of life into a science of sustainability*, Doubleday; 강주현 옮김, 2003, 『히든커넥션』, 휘슬러
Jeremy Rifkin, 2002, *The hydrogen economy : the creation of the worldwide energy web and the redistribution of power on earth*, New York : Jeremy P. Tarcher/Putnam; 이진수 옮김, 2003, 『수소혁명』, 민음사
Miguel Altigri, 2008, "Small farms as a planetary ecological asset: Five Key Reasons Why We should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Small farms in the Global South", *Food First*, <http://www.foodfirst.org/en/node/2115>
Robert L. Thayer, 1994, *Gray world, green heart :technology, nature, and sustainable landscape*, John Wiley and Sons
Rudolf Bahro, 1986, *Building the Green movement*, GMP
Satish Kumar, 1996, "Gandhi's Sweadeshi: The Economics of Permanence", *The case against the global economy : and for a turn toward the local*, Sierra Club Books
Tu Wei-ming, 1994, "Beyond the Enlightenment Mentality", *Worldviews and ecology : religion, philosophy, and the environment*, Orbis Books
Welden Bello, 2009, *The Food Wars*, Verso

독어

-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2005, 『희망의 원리1』, 열린책들
프리드리히 쉴러, 안인희 옮김, 1995, 『인간의 미적교육에 관한 편지』, 청하
행크만·로터 엮음, 김진수 옮김, 1998, 『미학사전』, 예경

불어

- Jean Ziegler, 1999, *Faim dans le monde expliquee a mon fils*, Editions du Seuil; 유명미 옮김,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